

#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맞은 농촌 지역 시어머니의 적응과정

안효자<sup>1</sup> · 정향인<sup>2</sup>

동신대학교 간호학과<sup>1</sup>, 전남대학교 간호대학<sup>2</sup>

## Adaptation Process of Mothers-in-law of Vietnamese Women Married to Korean Men

An, Hyo Ja<sup>1</sup> · Cho Chung, Hyang-In<sup>2</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Dongshin University  
<sup>2</sup>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generate a grounded substantive theory of the adaptation process of mothers-in-law of Vietnamese women married to Korean husbands. **Methods:** Thirteen women who had Vietnamese daughters-in-law were interviewed. Data were transcribed verbatim and analyzed using a grounded theory method. **Results:** Eight categories with 19 sub-categories were extracted from 268 concepts. The identified phenomenon was 'overcoming differences' and the core category was 'trying one's best to live together with daughter-in-law'. The 9 categories were grouped into 3 stages for the adaptation process: encountering, struggling, and living together.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when individuals from different cultural and personal backgrounds have to live together there is a continuing negotiation process towards meeting each other's needs. Health professionals can assist this adaptation process by providing these women with insights into various ways of meeting each other's need while they are struggling.

**Key Words:** Adaptation, Mothers-in-law, Vietnamese, International marriage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국제결혼은 해마다 10%씩 증가하여 2013년 2월 현재 결혼이민자는 전체 외국계주민의 10.5%를 차지한다. 그 중 여성결혼이민자는 85.8%인데 국적별로는 중국이 42.3%로 가장 많고 베트남이 26.5%로 많다(Ministry of Justice, 2013). 이는 2005년 이후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의 빠른 증가 속도를 보여주는 것이다(Chung, 2008). 중국 출신 결혼이민자의 대

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동남아 출신 결혼이민자는 지방과 공단 지역, 읍면단위의 농촌에 더 많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10).

이처럼, 199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은 2005년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현재 과도기적 과정으로 의사소통의 장애, 경제적 어려움, 가정폭력과 고부간의 갈등, 사회적 지지망 부재, 여성결혼이민자의 법적지위의 불안정, 자녀들의 학교부적응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여러 문제로 우리나라 전체 이혼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다문

**주요어:** 적응, 시어머니, 베트남인, 국제결혼

**Corresponding author:** Cho Chung, Hyang-In

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160 Baekseo-ro, Dong-gu, Gwangju 501-840, Korea.  
Tel: +82-62-530-4956, Fax: +82-62-220-4544, E-mail: hchoch@hanmail.net

**투고일:** 2013년 10월 13일 / **수정일:** 2013년 11월 4일 / **게재확정일:** 2013년 11월 11일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화가정 이혼은 증가하고 있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KNSO], 2012; Song & An, 2011). 다문화가정의 해체의 내적 원인으로 남편, 시부모와의 문화적 갈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Park & Bae, 2011; Yeo, 2010).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에도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와의 관계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Im, 2010; Kim, 2010). Kim (2006)의 연구에서도 부부갈등의 원인이 부부관계 자체보다는 공동생활이나 친인척간의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Yang (2008)은 시어머니의 남성 중심적인 문화와 위계적인 가족체계를 유지하려는 태도가 여성 결혼이민자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에게 부당함을 느끼거나 실망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하였고, Searle와 Ward (1990)은 타문화 적응에 있어서 사회문화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농촌 지역은 도시보다 직계가족과 동거하는 비율이 높고 가족관계를 넘어 친족관계까지도 확대되어 있어 외국인 며느리가 적응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Kim, S. K. et al., 2009; Yeo, 2010). 농촌 지역의 특성상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시어머니와 함께 보내야 하는 시간이 많아 다른 가족구성원에 비해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Seong & Hwang, 2013). 실제로 시부모의 문화적 유능감은 외국인 며느리와 긍정적으로 관계를 맺게 해주고 며느리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도 낮춘다. 그리고 시부모가 며느리와의 관계를 좋게 지각하는 경우 시부모의 생활만족도가 높고 며느리가 시부모와의 관계를 좋게 지각하는 경우 며느리의 결혼만족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Chung, Park, & Oh, 2010; Pyo & Kwon, 2009; Rittenour & Soliz, 2009). 이와 같이 시부모와의 관계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적응, 삶의 질, 결혼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농촌중심의 전라남도 지역의 결혼이민자들의 시부모와의 관계 만족이 낮다는 보고가 있었는데(Kim, Park, & Sun, 2009), 그 중에서도 베트남 출신 여자결혼이민자는 나이도 어리고 부부간의 연령차이도 크다는 특징이 있으며 최근에 이혼도 증가하고 있는데(Chung, 2008; KNSO, 2012), 이들의 경우 부부관계보다도 배우자의 부모·형제와의 관계에서 더 갈등이 크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Welfare, 2008). 뿐만 아니라 한국에 오는 베트남 여성의 대부분은 남부 농촌 메콩델타 출신으로,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면서 유교적 전통이 덜하고 이민족과의 결혼에 개방적이며 여성의 가치와 지위가 높고 남녀평등의식이 강한 곳이라 비교적 한국의 보수적인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농촌 지역의 시부모와의

적응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인 시어머니와 그 가족의 어려움도 가중시킬 것이며 이들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Kim, 2011). 이에 관하여 Kim, H. K. 등(2009)과 Seong과 Hwang (2013)은 다문화가정 시어머니가 한국인 며느리를 본 시어머니보다 스트레스나 고부갈등이 더 심하고 신체화 증상이나 우울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문제는 국제결혼을 반대한 경우에 더욱 심하다고 한다. 스트레스원으로는 경제적 문제, 며느리의 점잖지 못한 옷차림, 언어적인 문제, 아침에 늦게 일어나거나 낮잠을 자는 것 등이었다. 갈등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어적인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데(Morr-Serewicz, 2008; Quinn, 1983), 베트남 며느리의 경우 학력도 낮고 한국어 실력도 낮아(Kim, H. K. et al., 2009. 베트남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 해결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맞은 한국인 시어머니가 며느리와의 삶에 어떻게 반응하고 적응해나가는 지, 적응과정에 관련된 조건들은 무엇인지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간호사가 그들 서로의 건강한 적응과정을 돕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인데, 근거이론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상호작용과 사회적 과정을 탐구하여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이해함으로써 귀납적으로 실제이론을 유도하는 과정으로서 위와 같은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Park, I. H. et al., 2008). 지금까지 결혼이민자와 시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 가족 시부모들에 대한 연구’(Kim & Lee, 2011),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Kim, H. K. et al., 2009), ‘농촌 지역 시어머니의 외국인 며느리 봄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Yoon & Lee, 2010) 등 부분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로 문화적인 특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 출신들을 통합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진정한 다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근거이론방법을 사용하여,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맞이한 농촌 시어머니의 적응과정은 어떠한가?”라는 연구 질문을 가지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 출신 며느리와의 삶에 대한 시어머니의 적응과정을 이해하고 여러 복합적인 관련 조건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실제이론을 개발하고자 시도되었다.

최근 다문화와 관련된 가족의 갈등,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보건소 및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개입이 늘어나고 있고 지역거점 국립정신병원의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정의 갈등해결과 정

신건강 증진에의 참여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정책적 변화의 흐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간호사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의 기초로서 뿐 아니라, 건강한 다문화가정의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중재와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는 한국인 시어머니의 적응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사용한 질적 연구이다.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에 바탕을 둔 근거이론 방법은 실제로 수집된 경험적 질적자료에 근거하여 사회심리적 문제점, 대처전략, 그리고 과정의 변화 모두를 밝히는데 유용한 방법이다(Glaser, 197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방법을 이용하여 베트남 며느리를 맞은 한국인 시어머니의 적응과정을 파악하고 그 실제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참여자는 전라남도 농촌거주 베트남 며느리를 맞은 한국인 시어머니들이다. 본 연구가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임을 고려하여 베트남 며느리가 결혼을 최소 1년 이상 유지하고 동거해 본 경험이 있는 대상자를 선택하였다. 처음 선정은 N시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된 베트남 여성 결혼이민자의 시어머니와 참여자의 소개에 의한 눈덩이표집으로 하였고, 최종 13명이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였으며 나이는 55세~75세, 대부분 농업과 축산업에 종사하였고 베트남 며느리를 맞은 평균기간은 3년, 이들의 나이는 평균 42.10세이었다.

### 3.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연구참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자유의지에 따라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를 연구참여자로서 선정하였다. 연구 시작 전에 참여자에게 익명성의 보장과 면담내용은 연구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면담

도중 언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참여자가 원할 경우 탈퇴할 수 있으며, 면담내용은 녹음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된 동의서를 받았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만 열 수 있는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으며 연구의 최종 종료 시 즉시 폐기될 예정이다. 연구참여 시 참여자에게 불이익이 될 만한 조건으로는 긴 면담시간과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운 주제에 관한 응답 등이 있고, 유익이 될 만한 것으로는 면담을 통한 상담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장기적인 유익으로는 외국인 며느리를 둔 농촌 시어머니들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에 공헌한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자료분석 과정에서는 연구자가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름 대신 부호로 언급하였다

###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6월부터 참여자를 모집하여 자료가 완전히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 2011년 9월까지 약 3개월이다. 본 연구의 취지와 방법을 알고 있는 센터장파 팀장의 추천을 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가정방문 교사들을 면담자로 선택하여, 본 연구자가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반구조화된 질문지의 사용법, 추가적인 질문의 종류, 면담자의 선입견에 대한 주의 사항, 선입견과 편견을 없애는 태도에 대해서 교육을 한 후, 연구자가 시범적으로 면담한 내용을 모델 사례로 청취하는 훈련의 과정을 거친 후 면담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받은 면담자들은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서를 받았으며, 동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반구조화 된 질문지를 가지고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담장소는 참여자들이 편안해 하는 곳을 선택하게 했으며 참여자 대부분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방이나 거실을 선택하였다. 대부분은 며느리가 옆에 없는 경우에 이루어졌지만 며느리가 옆에 있어도 상관없다는 의사를 표명한 참여자도 있었다. 질문의 내용은 “어떻게 해서 베트남 며느리를 맞게 되었습니까?”, “베트남 며느리를 맞을 때 주변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베트남 며느리를 맞을 때 본인의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베트남 며느리를 맞은 후 있었던 일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무엇이든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였다. 면담내용은 자료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자의 허락 하에 녹음되었고, 한 교사가 면담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한 교사는 보조로 연구참여자들의 언어적·비언어적 표현과 진술 당시의 분위기 등을 면담노트에 기록하였다. 보통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40분

에서 1시간 정도이며 가장 긴 것은 1시간 30분 정도였고, 참여자 1명당 면담은 2~3회 시행되었다. 면담이 끝난 즉시 녹음된 참여자의 말을 필사하였으며, 필사된 자료는 연구자가 전체적으로 녹음자료와 비교하여 정확하게 옮겨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자는 필사된 자료를 반복하여 읽고 면담 내용이 풍부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면담자들과 함께 가정방문을 하여 면담을 시행하였다.

## 5.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필사된 면담내용은 Strauss와 Corbin (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방법에 따라 분석되었다. 필사된 자료를 한 줄 한 줄 읽으며 코딩을 하고 그 결과를 유사한 개념들로 범주화하는 개방코딩을 한 후, 범주 간의 관계를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상황적 맥락, 중재적 상황, 상호작용전략, 결과의 구조로 분석하여 연결하는 축코딩을 통해 패러다임 모형을 확인하였고, 마지막으로, 선택코딩을 통해 모든 범주와 연결된 핵심범주를 찾아낸 후 적응과정의 단계를 분석하였다. 두 연구자는 분석코딩과 상호작용의 내용을 수차례 비교 점검하였으며 이 과정은 순환적으로 반복되었다.

## 6. 연구의 진실성 및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의 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질적 연구 전문가인 두 연구자가 자료를 지속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는 토론의 과정을 거쳤고, 추출된 결과에 대하여 참여자와 면담을 했던 방문교사와 의견을 나누며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다. 본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방법에 대하여 대학원과정에서부터 수차례의 수업과 훈련과정을 통해 그 역량을 강화하였고 박사학위 논문을 비롯하여 여러 편의 질적 연구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한 바 있다.

##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268개의 개념이 발견되었고, 이들을 공통적인 내용으로 분류한 결과 8개의 범주와 19개의 하위범주가 발견되었다(Table 1). 8개의 범주를 재조합한 패러다임 모형에서 중심현상은 ‘차이 극복하기’였고, 핵심범주는 ‘며느리와 함께 잘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함’이었다. 이러한 적응과정은 며느리와 만남, 며느리와 씨름하기, 며느리와 함께 살아가기의 세 단계로 분류되었다(Figure 1). 구체적인 연

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맞이함(Causal conditions)

인과적 조건은 대개 중심 현상에 영향을 주는 일련의 사건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맞이함’이 중심현상인 ‘차이 극복하기’의 조건이 되는 범주로 파악되었다. 하위 범주로는 ‘아들의 결혼문제 해결에 대한 기쁨’, ‘며느리에 대한 기대’, ‘며느리에게 잘해주기로 마음먹음’, ‘며느리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임’, ‘며느리의 적응을 걱정함’ 등이었다.

#### 1) 아들의 결혼문제 해결에 대한 기쁨

모든 대상자들에게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맞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들의 결혼문제해결이었다.

며느리가 들어와서 아들 여운께(결혼시키니까) 제일 좋제. 아들 못 여우는 그 심정은 말로 못 하제(참여자 3).

우리 아들 혼자 살면 뭐하것소. 마누라 얻어서 살아야 제(참여자 12)

더 어린 애들도 장가가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쩔까 걱정했죠(참여자 11).

우리 아들을 못 여우고 있을 때 왔을때 얼마나 귀엽고 반갑것소. 글튼 저튼 상관없어 그렇든 저렇든 받아들였어(참여자 6).

#### 2) 며느리에 대한 기대

베트남 며느리를 맞을 때 다양한 기대도 있었다. 예를 들면,

옆집이 베트남 와서 오메 우리도 그런 며느리조까 오라해야 쓰것다 그랬거든. 어찌 시어머니한테 잘함께. 나도 저런 며느리조까 얻었으면 좋것다 인자 저만 하면 만족하것다(참여자 9).

베트남 아가씨들은 생활력도 강하고 여기 살아도 다른 부담을 안 가진다 해서 기왕이면 베트남 아가씨 데려오자 그래갖고 참말로 며느리를 들여올께(참여자 8).

여기 아가씨들은 다 그러고 생겼으니까 또(아들이) 큰 아들이고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어설피 외국으로 간 놈이 더 나을 것이다. 나중에 니가 부모 모실라고 생각하면 그 아가씨들 잘 모시니까 그래서 하게 되었죠(참여자 3).

**Table 1.** Trying One's Best to Live Together with the Daughter-in-law Paradigm

Paradigm component	Categories	Sub-categories
Causal conditions	Taking a Vietnamese daughter-in-la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eing happy having solved the problem of son's marriage</li> <li>· Expecting a good Vietnamese daughter-in-law because of good reputation</li> <li>· Accepting Vietnamese daughter-in-law reluctantly</li> <li>· Being worried about daughter-in-law's adjustment in Korea</li> <li>· Making up one's mind to take a good care for her Vietnamese daughter-in-law</li> </ul>
Contextual conditions	Experiencing distre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sychological distresses: feeling irritated, anxious, unsatisfied, sorry for son, sorry for daughter-in-law, worrisome, and regretful</li> </ul>
Intervening conditions	Facing proble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ughter-in-law's characteristics: young age, self-centeredness, unfaithfulness, stubbornness, financial purpose of marriage, laziness, disrespectful behaviors, not looking after children and/or husband, wasteful habit, poor Korean language skill, cultural difference, poor social skills</li> <li>· Son's characteristics: having special needs (disability), incompetence</li> <li>· Family's characteristics: financial constraints, family members' criticizing the marriage</li> </ul>
Action/ interaction strategies	Negotia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egotiating with daughter-in-law: financial support for her family of origin, financial support for son's family, support for daughter-in-law working, inviting daughter-in-law's family of origin, appeasing, giving hope to daughter-in-law, teaching, not having her do difficult tasks, respecting her ways, staying with her, taking care of her</li> <li>· Negotiating with oneself: having sympathy with daughter-in-law, being patience, expecting a better future, keeping hope seeing daughter-in-law change, considering daughter-in-law as own daughter, understanding daughter-in-law, making efforts to communicate with daughter-in-law</li> <li>· Negotiating with family members: coaching son &amp; other family members, asking for outside help</li> </ul>
Consequences	Feeling thankf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ughter-in-law's positive impacts: daughter-in-law's existence itself, grandchildren, son's change, change in family atmosphere, good marital relationship of son and daughter-in-law as a couple, daughter-in-law's good reputation by neighbors</li> <li>· Seeing changes in daughter-in-law: brighter facial expression</li> <li>· Being acculturated: learning Korean etiquette, making Korean food</li> <li>· Eating Korean food, speaking fluent Korean</li> </ul>
	Wishing for a brighter fu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ishes for daughter-in-law: maintaining marriage, taking good charge of household, better in caring for others</li> <li>· Wishes for son and daughter-in-law as a couple: health, raising grandchildren, stable financial condition</li> <li>· Wishes for grandchildren: not being bullied, accomplishing something</li> <li>· Wishes for society: discarding prejudice against other cultures</li> </ul>
	Giving 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different relationship with daughter-in-law</li> </ul>

3) 며느리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임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맞아들이게 된 동기는 한국인 며느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았다.

그 먼 데에 있는 아가씨 하고 싶었겠어요? 아들을 못 여우니까(결혼시키니까)무작정 그랬제(참여자 3).  
나이가 42살이나 먹어본게 힘들더라고 아가씨들이 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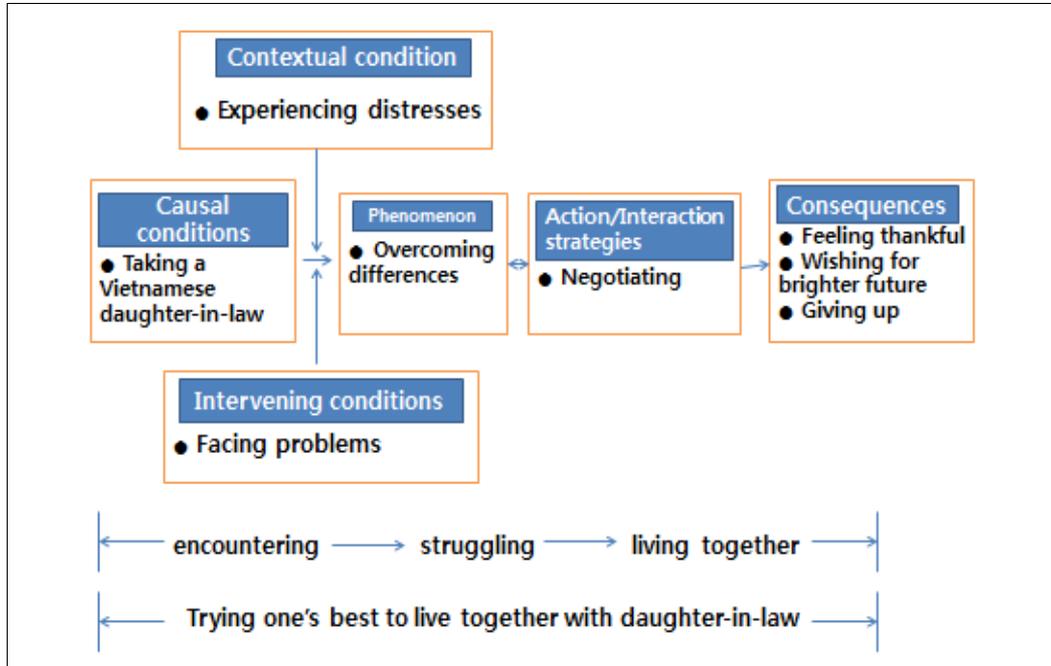


Figure 1. Adjustment process of Korean mothers-in-law.

촌에 안 온다 해싸코.(중략) 베트남 광고를 붙여가꼬 어찌고 알음어되었어(참여자 10).

#### 4) 며느리의 적응을 걱정함

연구참여자들은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맞을 때 걱정도 많았음을 보여주었다.

오메 타국에서 와서 살면 어쩔까 마음이 너무 걸리더라고요(참여자11).

막 왔을 때부터 말이 안통하고 니가 여기서 적응을 해서 살라냐 안 살라냐 모르것다는 마음은 먹었지(참여자 10).

#### 5) 며느리에게 잘해주기로 마음먹음

며느리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 며느리에게 잘해주기로 마음먹은 시어머니들이 많았다.

그래서 못해도 내가 잘해야 쓰것다 마음먹었는데요(참여자 11).

내 딸보다도 내가 더(잘)했어. 같이 사니까 너무 짠하고 노무(남의) 나라에서 오니까. 내가 잘해줘야겠다 했는데 지가 잘 하더라고요. 이녀 딸처럼 짠한 마음먹고 잘해줘야겠더라고요. 내가 잘하면 저도 더 잘한가봐요(참여자 11).

#### 2. 차이 극복하기(Phenomenon)

참여자들은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통해 아들의 결혼문제가 해결되고 며느리를 통해 무엇인가 달라지리라는 기대를 했다. 따라서 내키지 않아도 며느리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며느리가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지 걱정도 해주고 며느리에게 잘해주려고 마음을 먹기도 했으며 많은 비용을 들여 며느리와 아들의 결혼을 성사시켰다. 이러한 경험과 연결된 중심현상은 며느리와의 개인적 언어적 차이 및 생활양식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시작이었다.

#### 3. 고통을 경험함(Context)

맥락적 조건은 참여자가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해 해결하고자하는 일련의 문제들이나 환경을 의미하는데(Strauss와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답답함, 불안함, 불만스러움, 아들이 가없음, 며느리에게 미안함, 걱정됨, 후회됨 등의 다양한 심리적 고통의 양상을 보였다.

힘든 것을 어찌케 다 말을 할 수가 없어, 불안하고 답답할 때 얼마나 많이 내가 아조 답답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여 시상에 내가 요렇게 먼 디서 와가고 내가 너를 나무라 먼 뿔이 되갔냐 그러고 산께 겁나 짹짹하요.(중략) 베트남

만 갈란다 해싸코 참말로 가불까 싶고 겁나 불안합디다 불안해 죽겠서라 아들도 짤하고(참여자 8).

인자 말도 안통하고 저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하고. 또 먹는 것에서부터 틀리고. 일단 저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고 미안하고 후회도 되더라(참여자 7).

자기가 하던 성질이 그것이 폭발해버린거야 막 그래가 꼬 땅바닥 굴글고 그 적응할 동안에 힘이 겁나게 들쭉 우리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중략) 나 어찌 징헌께 어찌나 할까 죽어불고 잡고 내가 업보가 많은가벼라우(참여자 1).

#### 4. 문제에 부딪힘(Intervening Conditions)

중재적 조건은 중심현상과 관련된 보다 광범위한 구조적인 조건을 의미하는데(Strauss와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며느리의 특성, 아들의 특성, 가족의 특성이라는 조건들이었으며, 서로 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중심현상과 연결되어 있었다.

##### 1) 며느리의 특성

문제가 되는 며느리의 특성으로는 어린 나이, 자기중심적 태도, 불성실함, 고집스러움, 경제적인 목적의 결혼, 게으름, 무례한 행동, 남편과 자녀를 보살피지 않음, 낭비벽, 한국어를 못함, 문화적 차이, 사회성이 부족함 등이 있었다.

말도 안통하고 힘들어서 어떻게 세상을 돌아갈랑고(중략) 집을 두 채를 부수고 지었는데 짓고는 땅강을 부리는 것이여 안 산다고. 나를 안 불라고 하드라고. 저것이 말이 안 통해가고 심난하요. 이야기를 할라든 책에다 많이 모 아놔도 못다 하겠어. 돈 벌어가꼬 돈 십원 하나도 안 써줘 즈그집(친정) 부쳐. 매일 그래가꼬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중략). 비가 와서 한번에(친정)집이 짜그라들어서 태풍에 짜그라들었다 항께 돈이 이백만원 있으면 집을 짓는다 글구만 그래서 삼백오십을 해줬다. 그 이듬해 또 돈을 주라 해. 돈 돈 항께 가정불화가 나제 안 날것이요?(참여자 10).

며느리가 쩡쨍해. 시방도 그러고.(중략) 인사하는 법이 없어 내가 인사해라 인사해라 해도 안녕하세요 그것 뿐이여. 맨날 와서 우리집(베트남) 갈란다 갈란다. 밤낮 즈그 집 간다간다. 나가서 소지(청소)하고 밖에 나가서 착작깨 깎이 해야 쓴디 포도시(겨우) 정제(부엌)에서 밥이나 해 먹고. 밤낮 가서 먹고잡은(씻은) 것 다 사갖고 와. 돈 안

애껴(참여자 9).

그것도 불만이드만 용돈 안 준다고 시어머니도 안 주고 남편도 안 주고 한게 나갈란다(참여자 7).

힘들었던 것은 지가 적응을 못해가지고 힘들고 인제 부모님도 보고 싶고 언어도 틀리고 발음도 틀리고 내가 시키는 것은 지가 나쁘게 생각도 들고. 말을 안 해 애가 궁께 우리는 또 답답하제.(중략) 애가 몰라도 너무 모르더라고 밥을 허더니 식으면 나주고 따순 밥은 지가 딱 먹고 있어(참여자 1).

오리공장에 간 뒤로는 저녁에도 회식한다고 안 오고 늦게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 그냥 가버리고 하니깐 안 들어오고 있으면 그것이 속상하지요(참여자 4).

##### 2) 아들의 특성

문제가 되는 아들의 특성으로는 장애와 무능이 있었다.

(며느리가) 나하고 아들하고 무시하고 말을 안 들어 첨부터 현재까지. 아들은 암것도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고 사는 거여(참여자 7).

저것이 인자 지 앞길 못 헤쳐나가고 갈팡질팡한다 카 드빳 60만원 내가 갚아줬어 그 놈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칠 개월 요 관리비가 이렇게 밀려가꼬 있고 아들이 정신을 못 차려 직장을 어찌 댕겼다 끊었다(참여자 1)

##### 3) 가족의 특성

문제가 되는 가족의 특성으로는 경제적 어려움과 친척들이 결혼에 대해 비판적인 경우였다.

딸도 그러고 며느리도 그러고 엄마가 여울라고 했으께 엄마가 책임지라고. 모든 것이 내탓만 죄야(참여자 1).

내가 없는 상태에서 가서 아들을 여워가꼬 니들을 물질에 도움을 못 주니까 이렇게 내가 그런가보다. 인자 해놓고 보니까 물질이 인자 없으니까 애들을 고생시키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아들도 힘들고 며느리도 힘들고(참여자 4)

#### 5. 협상하기(Action/interaction strategies)

며느리, 아들,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심현상을 만들어 가는 전략으로서의 작용/상호작용전략(Strauss와 Corbin, 1998)은 ‘협상’이었다. 협상이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 다

른 입장의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양보하며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요구를 존중하고 자신의 생각을 양보하며 다른 이의 중재를 요청하는 과정을 협상으로 명명하였으며, 이것은 며느리와의 협상, 자신과의 협상, 가족과의 협상으로 분류되었다.

### 1) 며느리와의 협상

이 하위범주는 며느리의 친절에 대한 경제적 지원, 며느리와 아들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 며느리의 직장생활에 대한 지원, 며느리 친정식구 초대, 며느리 달래기, 며느리에게 희망 주기, 며느리 가르치기, 며느리에게 어려운 일 안 시키기, 며느리의 방식 존중하기, 며느리와 함께 있어 주기, 며느리 보살피기 등으로 이루어졌다.

올 때 잔하죠. 멀리서 와가지고 말은 안 통하지... 그래서 다독거렸지(참여자 3).

어르신들 만나면 인사 잘해라 그런거 교육시키제(참여자 6).

지그 어메 내년엔 오라고 했어. 돈을 벌지 못해 오란다고 해서 오라고 해라 그러면 여기서 비행기 샀을 80만원 은 주어야 해.(며느리 친절)집 사는데 보냈어. 그래서 지기집에 갔다왔제 작년엔.(참여자 12).

즈그 어메 시방 와서 담배 따고 일해 베트남에서 와가꼬(참여자 9).

내가 아들 그냥 모르게 해서 엄마이빨 좀 하시라고 베트남 돈으로 바꿔서 애기한테 줬어(참여자 11).

거기서는 300이면 보통 집 짓는데 500 가지면 높게 지은다 해 우리 아들이(베트남에)가서 성 지었다 해. 처갓집이 성 지었어라(참여자 6).

며느리 용돈 5만원씩 주면은 한번은 모아봤다가 그러니까 고놈 밥술 산다고요 17만 5천원인가(참여자 11).

음식은 망고 같은 거 그런 외국 그 찜처럼 써서 그런 거 잘 먹더라고요. 애기 임신했으니까 그런 것도 사다주고 그랬어요. 그 나라 과일 비싼 거 하나에 만원이나 허는디 그것을 아낌없이 사서(참여자 11).

저 하는 대로 저 노력대로 먹고 싶은 것 먹게 해주고 옷 같은 것도 다 사 입히고 맞춰줘야지 나는 여기서 살았으니까 알고 근데 그 사람은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맞춰줘야제(참여자 6).

일도 안 시키고 적응할 때까지는 나도 일 못했어요. 일

안 다니고 같이 있고 그리고 심심할까봐서 데리고 돌아다니고. 우리가 저를 잘해주고 우리 식구 만들라고 얼마나 노력하죠(참여자 1).

하고 싶으라 하고 하라고 해 많이 배운 게 좋제 꼭 저보다가 적으라고 지가 딱 적고 공께 이빠죽것어(참여자3).

조금만 더 참다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타 일러놓고 좀 풀어졌어요(참여자 4).

### 2) 자신과의 협상

자신과의 협상은 며느리를 불쌍히 여기기, 인내심 갖기, 보다 나은 미래를 생각하기, 며느리의 변화에서 희망 갖기, 며느리를 딸로 여기기, 며느리 이해하기, 며느리와 대화하도록 노력하기 등이었다.

내가 아팠어요. 저번 때 여름에. 식사를 밥 먹으란 소리를 안 하더라고 아파서 누워있는데 좀 밍더라고... 아휴 어린게(어리니까) 그런갑다 문화가 틀리게 근갑다 하고 내가 이해를 해볼죠..아침에도 일찍 일어나라 그것도 자주 하면 안 되지.(참여자 3).

사람이 성질이 없다우? 성질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제. 그래도 천리타향에서 누구를 보고 오느냐. 내가 막둥이 딸로 생각해. 반찬을 해도 쓰면 쓰다 달면 달다고 하지 않고 해준대로 먹고 날짜가 가면 할 것이라 그러제.(참여자 12).

웬만하면 내가 아침을 해버려 이해해 불고 그냥 딸이다 하고 깨울라고도 안 하고(참여자 3).

우리 식구로 만들어 살 랑게 안 좋은 것을 표현 못 하고 아무리 잘못해도 너 어찌 그랬냐? 그 소리를 못했어(참여자 8).

우리가 저한테 나쁜 점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안 된다 갈켜주고 지가 적응할 때까지는 우리가 징히 저한테 잘해주고(참여자 1).

타국에 생전 안 와본디를 와서 산디 오죽허것소 그것도 이해를 허고 잔헌 마음도 들고(참여자 1).

내 며느린디 우리 아들하고 같이 산디 시어머니들이 시집살이 시킨다른 나는 이해가 안 가(참여자 3).

아 내가 자식 안 여워서 있는 것보다 너희들이 싸우면서 있는 것이 더 낫겠다 그래서 내가 이해를 많이 하지요 이해하고 많이 참고(참여자 4)

### 3) 가족과의 협상

가족과의 협상은 아들과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조언하기,

다른 사람의 도움 구하기 등으로 분류되었다.

며느리가 신작로에 혼자 앉아 있어. 어찌 근다냐 그러니까 아들이 며라고 했나봐. 그럼 못 쓴다 데려오라고 했제. 아들한테 며이라고 했어요. 그러지 마라고.(참여자 3).

처음에는(아들 말투가) 좀 툭툭하니 오메 그러면 못 쓴다 좋게 해라 내가 늘 말했어요. 지금은 인자 툭툭 안 하고 잘해요(참여자 11).

우리 아들보고도 그랬어 해준대로 먹자 그냥 해준대로 먹어야제 어찌겼나(참여자 8).

처음에 작은 며느리가 엄마 큰 며느리 꼬끔 일어나라고 해요 너도 인자사 인났지(일어났지)? 거시기 하면 인나야 지그들도 내가 꼭 눌러 붓게 뭘 소리 못해(참여자 3).

## 6. 감사함(Positive consequences)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결과 참여자들은 며느리가 주는 열매들에 감사를 느끼고 며느리자신이 보이는 변화에 감사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며느리가 가족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

며느리가 가족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요인은 다양했으며 주로 손자와 아들에 관한 내용이 많았다.

애기 보니까 밤낮 좋제. ○○가 재롱 피우니까 그 낙이 있으니까 나는 좋아 내가 먼 낙이 있겼어 그것이 큰 낙이제.(참여자 12).

우리 ○○이 낳아서 최고 좋고 행복하제라. 그만한 만족이 없어(참여자 8).

지가 엄마엄마하고 너무 잘 해요. 아조 딸보다도 잘해요 애기가 애기 우유 값은 누가 버는가 하고 그러니까 곁 혼해서 가정을 꾸리니까(아들이) 책임감도생기고(참여자 11).

결혼시켜논게 아들도 더 활발해가고 일도 성의 있게 잘 하고 모든 것이 마음이 편해요(참여자 8).

손자 낳은 게 젤 좋제. 아들 낳고 살림 잘하고 지 남편 잘 챙겨주고 그것이 젤로 즐겁제(참여자 6)

아! 금슬 좋고 싸움 안 하고 잘 산게 좋지(참여자6).

복둥이가 들어왔다 우리 딸들도 복둥이가 들어왔다 그리고. 즈그 둘이 또 금실 좋게 살고 있고 동네에서 다 부러워라 해(참여자 3)

### 2) 며느리에게서 보이는 변화들

처음에 힘들어했던 며느리에게서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도 시어머니들에게는 감사와 만족의 조건이었다.

일 잘한게 좋아 딸기를 잘 따(참여자9).

인자는 속 많이 들었어라. 가만히 보면 속이 많이 들었어 하하하(참여자 8).

어른답게 취해주고 머이든지 잘 공경할 줄 알고 뭐이든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착착하고 그렇게 잘해(참여자6).

지금은 지가 적응을 하고 이해를 하니가 좋은 편이죠. 밥이라도 요리코 지가 해서 신랑이라고 차려주고 저도 묵고 그렇게 살것어 그때는 밥도 안 허고 내다도 안 보고(참여자 1).

우리가 잘 한게 저도 밝아지고 아무런 불평을 우리가 안 한게 저도 그냥 겁나게 밝아졌어. 처음에는 그냥 안 밝더라고. 우리 ○○엄마가 많이 밝아졌다고 밝아졌다고요(참여자 3)

## 7. 미래에 대한 바람을 가짐(Positive consequences)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감사 외에도 연구대상자들은 며느리, 아들내외, 손자들, 사회에 대한 바람을 유지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었다.

### 1) 며느리에 대한 바람

며느리에 대한 바람은 주로 가정을 지키는 것이었다.

인자 해먹고 살고 이것 아부지(아들) 애껴주고 잘 살고...(참여자 9).

살다가 제일로 마음 변해가지고 어디로 후딱 어디로 갈까 무서워서 그것이 걱정이제. 돈 애껴쓰고 살림만 잘 하면 그것이 만족이제(참여자 8)

### 2) 아들 부부에 대한 바람

아들 부부에 대한 바람은 화목하고 건강하게 가정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내용이 많았다.

지금 둘이 지금만으로 행복하게 잘 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참여자 11).

그저 못나도 너희 나가지만 말고 너희 둘이서 늙어 죽을 때까지만 살아라 그렇게만 내 마음 속으로 살고 있어.

응 어디 가지나 말고 늙어죽도록 우리 집에서 살아라(참여자 6).

즈그들끼리 잘 살고 서로가 좋고 지가 쪼끔만 이해하면 좋겠어요. 즈그들끼리 잘 살고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이지(참여자1).

지들이 앞으로 몸 건강하고 잘 사는 것이 우리는 이제 바라는 것이제 착하게 몸 건강하고 잘 키우고(참여자 3)

### 3) 손자들에 대한 바람

손자들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나라에서 우리 ○○○ 학교간디 잘해서 모든 것 앞으로 잘 나갔으면 좋제(참여자 8).

애기가 앞으로 잘 키워놓으면 괜찮겠다. 어려서부터 하는 것이(참여자 4).

### 4) 사회에 대한 바람

사회에 대하여는 정부의 지원과 편견과 차별 없는 사회에 대한 바람이 많았다.

정부에서 애를 처음부터 가르칠 때부터 대학교 갈 때까지 정부에서 많이 혜택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참여자 11).

인자 앞으로 애들이 크면 쪼끔 뭇이 있을랑가 다문화 가정애들이여가꼬 며 어쩐다 저편다 앞으로는 세계가 다니 나라 내 나라 없은게 앞으로는 편견이 없을 거이다. 그렇게 한국사람이나 외국사람이나 똑같이 대해주면 바람이다(참여자 3).

## 8. 체념함(Negative consequences)

긍정적인 적응이 실패한 경우 체념을 통해 현실을 수용하거나 부정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나 뱀뫼버려 즈그 일 즈그가 알아서 할...(참여자 10).

오메 못 살것네 그것을 어쩔 것이요 그것을 날마다 가르칠 수도 없고 그저 살아야제 어쩔 것이요. 내가 같이 하면 기가 막히게 서럽게 물어 불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로 뱀뫼부요 그냥 뱀뫼부러(참여자 8).

며느리가 불만이 있어. 나는 내뱀뫼버려 요새는 좋은

지도 나쁜지도 모르고 살아요. 저는 저대로 묵고 나는 나대로 묵고. 죽어 불면 안 보는데 괜찮아 아들이 거지가 될지 모르제... 죽어 불면 안 보는데 뭘 상관있어(참여자 7).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베트남 며느리를 맞이한 시어머니의 적응과정은 며느리와 함께 잘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는 며느리와의 만남, 며느리와 씨름하기, 며느리와 함께 살아가기의 단계로 나눌 수 있었다. 적응의 과정에서 다양한 협상방법을 통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의 필요와 기대를 잘 조절하는 경우 서로에게 만족스러운 적응과정을 보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차이를 좁히는 데에 실패하는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최근 농촌에는 베트남 며느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혼 역시 증가하여 가정해체라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해체의 원인으로 시부모와의 관계도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 외국인 며느리를 만난 시부모의 스트레스 정도도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베트남 며느리를 맞은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베트남 며느리와의 적응과정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종합적인 맥락에서 다문화가정의 적응을 돕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베트남 며느리를 맞은 시어머니의 적응과정을 살펴보면, 시어머니인 대상자는 내국인과는 결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아들의 결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며느리를 어쩔 수 없이 또는 적극적으로 맞이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며느리에 대한 기대와 잘해 주겠다는 마음도 먹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이도 어리고 남편과도 나이차이가 많은 어린 며느리가 이국땅에서 잘 적응할지 걱정도 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와의 개인적·언어적·문화적 차이로 인한 다양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는데 있어 며느리의 특성, 아들의 특성, 가족의 특성이 변수로 작용하게 되고 며느리, 자신 그리고 가족과의 협상과정을 겪게 된다. 이러한 협상이 잘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응적인 결과를, 반대로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응적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Yoon과 Lee (2010)는 농촌 시어머니의 외국인 며느리 경험을 ‘애달픈 마음으로 아들 결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함’, ‘딸처럼 품고 살려고 생각함’, ‘내 집 사람처럼 만들려고 함’, ‘복덩

이 며느리와 함께 삶’, ‘보이지 않는 울가미 감기’, ‘그래도 괜찮음’ 등 6가지 범주로 도출하였다. 그리고 Her와 Kim (2010)는 다문화가정 시어머니의 생활경험을 ‘무거운 짐을 던 듯한 안도감’, ‘서로 다름에서 오는 갈등’, ‘그냥 내가 참아버림’, ‘내 며느리로서 인정함’, ‘아들의 행복한 미래를 그림’ 등 5가지 범주로 도출하였다. 두 선행연구는 본 연구의 적응과정에서 나타난 ‘며느리와의 만남’, ‘며느리와 씨름하기’, ‘며느리와 함께 살아가기’의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험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며느리와의 만남에 해당되는 본 연구의 인과적 조건에서 ‘아들의 결혼문제 해결에 대한 기쁨’, ‘딸처럼 생각하고 잘해주려고 하는 마음’ 등은 Yoon과 Lee (2010)의 ‘딸처럼 품고 살려고 생각함’과 Her와 Kim (2010)의 ‘무거운 짐을 던 듯한 안도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다. 며느리와 씨름하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와의 문화적 차이와 언어적 문제를 경험하게 되고 며느리의 행동에 대해서 당황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시기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Yoon과 Lee (2010)의 ‘보이지 않는 울가미 감기’와 Her와 Kim (2010)의 ‘서로 다름에서 오는 갈등’에 해당되겠다. 통상적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잠재적인 갈등관계(Fischer, 1983)이지만, 다문화가정의 고부간의 갈등은 더욱 심각할 수 있다(Chung et al., 2010).

본 연구에서 시어머니가 지각하고 있는 문제는 며느리의 특성, 아들의 특성, 가족의 특성으로 나뉘볼 수 있는데, 며느리의 특성으로는 나이가 어림, 자기중심적인 태도, 불성실함, 고집스러움, 경제적인 목적의 결혼, 게으름, 무례한 행동, 남편과 자녀를 보살피지 않음, 낭비벽, 한국어를 못함, 문화적 차이, 사회성의 문제 등이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Kim, H. K. 등 (2009)의 연구에서 나타난 시어머니의 스트레스 요인인 경제적인 문제, 며느리의 점잖지 못한 옷차림, 언어적인 문제, 아침에 늦게 일어나거나 낮잠을 자는 것 등과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나이도 어리고 소통도 안 되는 며느리가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게 되면 때를 쓰고 땅바닥에 뒹구는 등 막무가내의 행동을 하거나 베트남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습관처럼 한다는 것이었고 베트남으로 돌아가겠다는 며느리 말은 시어머니에게는 협박처럼 느껴지고 불안을 유발하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시어머니들은 울가미, 업보 등으로 이리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함을 표현하였는데 갈등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언어적인 소통이(Morr-Serewicz, 2008; Quinn, 1983), 베트남 며느리의 경우 학력도 낮고 한국어 실력도 낮아(Kim, H. K. et al., 2009) 더욱 어렵게 느껴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시어머니가 지각하

고 있는 베트남 며느리에 대한 관점은 한 성인인 며느리이기 보다는 버릇없고 만만한 딸의 느낌이었고, 며느리의 특징에 대한 관점은 문화적인 차이에서라기보다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행동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이러한 지각과 생각을 계속 고수하게 되면 협상은 결렬되고 적응은 어렵게 된다. 그리고 아들의 특징으로는 장애와 무능을 언급하였고, 가족의 문제로는 경제적 어려움과 다른 가족 또는 친척들의 비판적인 태도 등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농촌 지역의 특성상 친척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외국인 며느리가 적응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Kim, H. K. et al., 2009; Yeo, 2010)를 지지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아들에 대한 문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아들의 문제점을 언급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면담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시어머니가 아들의 무능과 경제적인 문제를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며느리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가출을 걱정하면서 협상에 적극적이지만 반대인 경우에는 며느리에 대해서 더욱 적대적인 태도를 취해 협상에도 소극적이었다는 것이다. 베트남 여성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Chung, 2008)으로 생각하듯이 시어머니의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아들과 가족의 문제로 인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베트남 며느리는 본국에 있는 원가족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기를 원했고, 이는 결혼의 조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막상 농촌으로 시집을 와서 보면 결혼 전의 정보와 사뭇 다르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친정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갈등은 더욱 악화된다. 이러한 정보의 차이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경우에 가장 크게 발생하게 되는데, 베트남 여성의 경우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비율이 가장 많아(Chung, 2008), 다른 외국인 여성보다 더 크게 갈등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외국인 며느리의 친정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은 한국인 시어머니 역시 민감한 부분이고 스트레스 요인으로(Kim, H. K. et al., 2009), 이에 대한 수용여부는 시어머니의 적응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다.

Koo (2007)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혼돈과 갈등에서 점차 문제를 해결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인 시어머니들도 며느리들처럼 차이를 극복하고자 며느리, 자신, 그리고 가족과의 협상을 끊임없이 시도하였다. 며느리와의 협상방법은 경제적인 지원, 며느리의 친정 가족을 한국에 초대하기, 며느리를 달래고 희망주기, 그리고 며느리의 생활방식 존중하기가 있었다. 자신과의 협상으로는 며느리에 대해서 희망을 놓지 않고 딸처럼 생각하면서 대화하

기를 하였다. 가족과의 협상은 아들에게 며느리한테 잘하도록 조언을 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베트남 며느리에게 한부로 하지 못하도록 옹호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많은 선행연구(Kim, H. K. et al., 2009; Kim & Lee, 2011)에서 농촌 시어머니는 외국인 며느리와 문화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거나 일반적으로 한국문화에 동화되기를 바라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시어머니 나름의 며느리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옹호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시어머니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여 며느리를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딸처럼 또는 내 집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정(情)’과 ‘연민(憐愍)’으로 베트남 며느리를 가슴으로 품으려고 노력하였다. 베트남 시어머니의 이러한 협상의 결과 긍정적인 경우에는 ‘며느리가 주는 긍정적인 영향과 변화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며느리, 아들, 손자,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도 희망적인 바람’을 품게 되지만 부정적인 경우에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와 같은 체념을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이 긍정적 적응을 하는데 있어서는 아들의 문제에 대한 인정과 베트남 문화에 대한 수용, 그리고 베트남 며느리에 대한 측은지심으로 대상자의 사고와 감정의 재구성이 필요했다. 이는 Kim과 Lee (2011)가 다문화가정 시부모들이 처음에는 자기의 영역을 고수하려고 하지만 점차 자기를 해체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적응한다는 설명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다. 다각적인 협상방법을 통해 차이를 극복한 경우에는 적응적인 과정을 보이지만, 제대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아들 부부의 별거, 이혼 또는 베트남 며느리의 가출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중심현상인 차이를 극복하고 베트남 며느리와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대상자인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친정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문화적인 차이의 수용, 아들과 가족들의 문제 인정, 아들과 친척들에게 며느리를 배려할 수 있도록 옹호하는 등 자신의 태도와 사고를 재구성하였다. 특히 베트남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언어적인 소통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더욱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사들이 실시하는 다문화가정 갈등해결 프로그램에 언어, 문화, 및 경제적인 문제 뿐 아니라 시어머니가 사고를 재구성할 수 있는 인지적 전환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는 고부관계증진 프로그램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제언한다.

둘째, 시어머니의 심리적 안녕을 촉진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자조그룹의 운영 등 시어머니 자신의 적응과정을 지지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의 시행을 제언한다.

셋째, 시어머니 뿐 아니라 다른 가족구성원들의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도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넷째, 간호학생들의 문화적 역량과 감수성을 강화하기 위해 간호교육에 다문화가정 여성이민자들의 적응 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적응과정에 대한 내용도 추가하기를 제언한다.

## 결론

본 연구는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에 바탕을 둔 근거이론 방법을 통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는 한국인 시어머니의 적응과정을 파악하고 그 실제이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8개의 범주와 19개의 하위범주가 발견되었다. 중심현상은 ‘차이 극복하기’였고, 핵심범주는 ‘며느리와 함께 잘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함’이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는 베트남 며느리를 맞아 기쁨, 기대, 걱정 등 복합적인 감정과 며느리와 개인의 언어적·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게 되고, 이를 극복하고자 며느리, 자신 그리고 다른 가족과 협상을 하게 된다. 협상의 결과 며느리의 변화에 감사하고 아들 부부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는 긍정적인 적응과 반대로 모든 것을 체념하는 부정적인 적응을 가져왔다. 따라서 베트남 며느리를 맞은 시어머니가 적응하는데 있어서는 며느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시어머니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간호사는 복합적인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이 과정을 정서적, 사회문화적으로 지지하며 중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전문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Chung, K. S. (2008).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s Korea migration and their adjustment of life in Korea. *Humanities & Social Science Studies*, 20, 68-103.
- Chung, S. D., Park, H. J., & Oh, B. R. (2010). Relationship patterns between parents-in-law and foreign daughters-in-law based on the perceived agreement of quality of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2(1), 133-153.
- Fischer, L. R. (1983). Mothers and mothers-in la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187-192. <http://dx.doi.org/10.2307/351307>
- Glaser, B. (1978). *Theoretical sensitivity*. Mill Valley: Sociology

- Press.
- Her, S., & Kim, K. H. (2010). The life experiences among mothers-in-law of multi-cultural families. *Nursing Science*, 22(2), 51-63.
- Im, H. (2010). The impact factors on mental health among marriage migrant women. *Mental Health & Social Work*, 34, 189-221.
- Kim, H. K. (2010). A subjectivity study of types for stress in immigrant women of multicultural families who married to Korean men. *The Women's Studies*, 78, 119-158
- Kim, H. S. (2011). Impacts of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on depression among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in Daegu and Kyungpook a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0, 188-198.
- Kim, K. H., Park, G. S., & Sun, J. J. (2009). Stress of mothers-in-law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21, 639-651.
- Kim, O. N. (2006).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marital conflicts of immigrant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 Kim, S. K., Kim, Y. K., Jo, A. G., Kim, H. R., Lee, H. K., Seo, D. H., et al. (2010). *2009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y survey*. Seoul: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Ministry of Justice · Gender Equality & Family · Health and Social Affairs Korea.
- Kim, Y. S., & Lee, K. M. (2011). The qualitative study about parents-in-law of multicultural family-Hermeneutical grounded theory methodolog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2(2), 41-70.
- Koo, C. S. (2007). Study on the interracially married female immigrants' adapt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0, 319-359.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8, December). *Welfare policies in multicultural era: For multicultural families*(Study Report 2008-14). Seoul: Author.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KNSO]. (2012). *Vital statistics of multicultural in 2011*. Seoul: Author.
- Ministry of Justice. (2013). *February 2013 Monthly Immigration Statistics*. Retrieved March 2, 2013, from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7&strWrtNo=111&strAnsNo=A&strNbodCd=noti0703&strFilePath=moj/&strRtnURL=MOJ\\_40402000&strOrgGbnCd=104000&strThisPage=2&strNbodCdGbn=](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7&strWrtNo=111&strAnsNo=A&strNbodCd=noti0703&strFilePath=moj/&strRtnURL=MOJ_40402000&strOrgGbnCd=104000&strThisPage=2&strNbodCdGbn=)
-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PAS]. (2010). *2010 Local government survey results of foreign residents*. Seoul: Author.
- Morr-Serewicz, M. C. (2008). Toward a triangular theory of the communication and relationships of in-laws: Theoretical proposal and social relations analysis of relational satisfaction and private disclosure in-law triads. *Journal of Family Communication*, 8(4), 264-292. <http://dx.doi.org/10.1080/15267430802397161>
- Park, C. S., & Bae, N. R. (2011). The study of how to integrate multi-cultural families with the local community. *The Korean Association of Asian Studies*, 14(3), 127-149.
- Park, I. H., Kim, J. S., Park, M. K., Lee, E. S., Chung, H. I., Han, Y. J., et al. (2008). *Research methods*. Seoul: Koomoosa.
- Pyo, K. S., & Kwon, M. H. (2009). A study on the marital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Chungbuk province.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28, 21-48.
- Quinn, W. H. (1983). Personal and family adjustment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57-73. <http://dx.doi.org/10.2307/351295>
- Rittenour, C., & Soliz, J. (2009). Communicative and relational dimensions of shared family identity and relational intentions in mother-in-law/daughter-in-law relationship: Developing a conceptual model for mother-in-law/daughter-in-law research. *Western Journal Communication*, 73(1), 67-90. <http://dx.doi.org/10.1080/10570310802636334>
- Searle, W., & Ward, C. (1990). The prediction of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adjustment during cross-cultural transi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4, 449-464. [http://dx.doi.org/10.1016/0147-1767\(90\)90030-z](http://dx.doi.org/10.1016/0147-1767(90)90030-z)
- Seong, E. Y., & Hwang, S. T. (2013). Study on the conflict of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coping strategies, mental health in multicultural family.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omen*, 18, 243-256.
- Song, S. H., & An, H. J. (2011). Experience of child-rearing of Filipino married immigrant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0, 167-179.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London: Sage.
- Yang, S. M. (2008). *A study on multicultural counseling in Korean situation based on the enculturative stressors, stress responses of marriage migrant women in rural area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Yeo, J. C. (2010). The formation and cultura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Journal of Korean Culture*, 44, 351-388.
- Yoon, M. S., & Lee, H. K. (2010).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s of mother-laws with foreign-daughter-in-laws in rural area. *The Journal of Rural Society*, 20(2), 191-232.